
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21. 8. 11.(수) 배포</p>			
<p>보도일</p>	<p><b>2021. 8. 11.(수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8. 11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</b></p>				
<p>담 당</p>	<p>교육부</p>	<p>사회정책총괄담당관</p>	<p>과장 강정자</p>	<p>사무관 윤여진</p>	<p>(☎ 044-203-7256)</p>
		<p>평생학습정책과</p>	<p>과장 이해진</p>	<p>사무관 남윤철</p>	<p>(☎ 044-203-6379)</p>
	<p>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</p>	<p>과장 이현옥</p>	<p>서기관 박수연</p>	<p>(☎ 044-202-7270)</p>	

##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

- ◆ '평생교육바우처' 지원 대상 및 '국민내일배움카드' 지원 분야 확대
- ◆ 산업계와 협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학습 지원
- ◆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·협력 추진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8월 11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.
  - 이번 회의에서는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'전 국민 평생 학습체제 지원방안'을 발표한다.
    - ※ 「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」의 하나로, 교육부·고용노동부 공동 수립
- 2025년 이후, 25세 이상 국민이 총 인구의 8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.

인구구조의 변화 (통계청, 2019)

1990년		2010년		2025년 <sup>전망</sup>		2040년 <sup>전망</sup>	
6~24세	25세~	6~24세	25세~	6~24세	25세~	6~24세	25세~
36.9%	53.9%	24.0%	69.4%	16.2%	80.3%	12.5%	83.9%

- 이에, 이번 방안에는 ‘누구나,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,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, 학습결과를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’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.

## 【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】

- 우선,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, ‘평생교육바우처\*’와 ‘국민내일배움카드\*\*’ 지원을 확대한다.

\*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층 대상 / 1인당 연 35만 원(최대 70만 원 가능)

\*\* 국민 대상(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) / 5년간 1인당 300~500만 원

- 내년부터 ‘평생교육바우처’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(예: 중·장년 등)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,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확대한다.

\* (현행) 직무중심 훈련 → (개선)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·직무기초능력 포함

- 또한,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·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‘(가칭)온국민평생배움터’를 2023년 까지 구축하고, ‘직업훈련포털(HRD-Net)’을 확대·개편하여 자신의 훈련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·관리하도록 지원한다.

- ‘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’와 ‘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(STEP)’에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.

- 아울러,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 학습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\*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, (가칭)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,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등

## 【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】

- 누구나 인공지능,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현장성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인 ‘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\*(K-Digital Training)’을 2025년까지 19만 명에게 지원한다.
    - \* 멧쟁이 사자처럼, 엘리스, 코드스테이츠 등 혁신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주관, 카카오, 네이버, 쏘카 등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전문 개발자 등이 참여(한국판 Ecole 42 모델)
  - ‘디지털 혁신공유대학\*’에서 대학·산업체·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중 일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‘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’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유한다.
    - \*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·산업체·연구기관 등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기존 전공과 관계없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(2021년, 8개 분야·46개교)
- 또한, 청년기·중년기·장년기·노년기 등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.
  - 우선, 오는 9월부터 금융, 자녀교육, 건강 등 세대별 취향과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 ‘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’를 방송(JTBC)과 온라인(K-MOOC)을 통해 제공한다.
  -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메우고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, 내년부터는 중앙·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조사·분석\*을 시작한다.
    - \* 「평생교육법」개정을 통해, 관련 법적근거 마련(2021.12.9. 시행)
  - 향후, 생애주기·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중앙-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## 【 전문대학-폴리텍대학 간 연계·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 】

- 교육부·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창구를 마련하여, 직업교육-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상승(시너지) 효과를 창출한다.
  -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하고, 실습실 등을 공유·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- 아울러, 전문대학이 ‘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(K-Digital Training)’ 등 신기술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·자문을 제공하고, 전문대학의 경우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\*도 검토한다.
  - \* (시설·장비 보유기준 완화) 전문대 보유 → 폴리텍 시설·장비 공유도 허용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“평생학습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, 우리의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모든 국민이 ‘학습이 있는 삶’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